

# 제 8 기 외국인 시민회의 보고서 [개요판]

도요나카시에서는 외국인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5 년 7 월에 「외국인 시민회의」를 시작해 이번 외국인 시민회의로 8 기째가 되었습니다. 외국인 시민 9 명이 위원으로 2019 년 7 월부터 약 2 년간, 4 회에 걸쳐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. 이번 기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 2 회부터 제 4 회까지의 회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.

제 8 기의 테마를 「살기 익숙해진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」로 하고 , 일상생활 중에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의 차이를 느꼈을 때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 또,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힘든 점 등의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.

나눈 이야기 가운데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.

2021 년 5 월

도요나카시 외국인 시민회의 사무국

인권정책과

## 제 8 기 테마

# 「살기 익숙해진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」

### ◆ 회의에서 나온 주요 의견(정리) ◆

#### ■ 의료에 대해

- 문진표를 일본어로 써야하는 것은 외국인에게는 어렵다. 외국인을 위한 클리닉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
- 도요나카시에 의료통역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중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나 의사와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. 병원에 가면 있는 통역이 아니라 같이 병원에 갈 수 있는 통역이 필요하다.
- 외국인은 말이 안통하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한다. 게다가 통역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생각한다.

## ■ 교육에 대해

○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통지표에 대해 학교나 선생님이 문화나 습관의 차이를 잘 몰라서 아이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 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. 일본 교육 시스템이나 학교생활을 잘 모르는 외국인 부모에게 지원이 필요하다.

○학교 학생 중에는 외국아이나 부모의 해외근무 등으로 일본어를 잘 못하는 일본인 아이가 있다. 학교의 프린트가 전부 일본어나 한자로 써 있으면 못 읽는 경우가 있다.

## ■ 식문화에 대해

○종교상의 이유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. 여러 초등학교에서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, 외국인도 언어의 벽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.

○아이들은 집안에서의 요리 이외에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나 급식을 통해 일본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

## 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

○외국인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다고 생각한다.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불안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, 어디에 이야기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의료서포트가 있으면 좋겠다.

## ■ 그 외

○지금까지 참가한 이벤트는 전부 일본인이 주도하는 활동이었다. 외국인이 주도하고, 일본인이 같이 참가하는 이벤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.

○재해 등 긴급시에 외국인 간에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.

○문장에 읽기 표기가 되어 있어도 내용이 일본인 위주로 쉬운 일본어가 아니다.

○외국인이 일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천하는 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겠다. 일과 관련된 책도 히라가나나 쉬운 일본어로 만들면 좋겠다.